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목사의 자기 훈련**

[딤편 4:11]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본 서신의 앞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들은 특히 바로 앞에서 말한 금욕주의의 미혹을 받지 말고 참된 경건 훈련에 힘쓰라는 교훈을 포함한다. 본 서신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은 디모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디모테는 그 진리들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다.

특히 ‘명하라’는 말은 이 진리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임을 잘 보인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간적 권위를 가진 말이라면 명령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전통사본)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청년은 보통 지식과 인격에 부족이 없지 않겠지만, 젊은 사역자인 디모테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하였다. 오늘날에도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 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말씀 사역자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말은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은 영역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1-2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말씀 사역자는 말에 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말씀 사역자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생명이 삶이다. 참된 신앙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17, 26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했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는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네 성품과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 또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말씀 사역자는 이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

넷째로, 말씀 사역자는 심령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을 가리킨다고 본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인격을 나타낸다. 말씀 사역자는 생각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말씀 사역자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성도의 기본적 덕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없다. 이 믿음은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해 강해진다. 말씀 사역자는 믿음이 견고한 자이어야 한다.

여섯째로, 말씀 사역자는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정절’이라는 말은 순결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깨끗함을 뜻한다. 말씀 사역자는 이성 관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이 그를 통해 받는 모든 교훈에 신임성을 두고 그것을 믿고 그를 따를 것이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착념하다’는 말은 ‘집중하다, 전념하다’는 뜻이다. 디모테는 아직 젊어서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의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했다.

우선 그는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 아니라 공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성경 읽는 일은 자신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유익한 일이다. 또 그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 ‘권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가리키며, ‘가르치는 것’은 성경말씀을 해석하며 그 중요한 교훈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인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장로의 회’는 오늘날의 노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말씀 사역자로 인수받을 때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역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는 해외선교의 은사를, 해외선교도 어떤 이에게는 이슬람 지역의 사명을, 어떤 이에게는 공산권 지역의 사명을, 어떤 이에게는 국내의 농어촌 전도사역, 장애인 전도사역, 군 부대 전도사역, 전문인 전도사역 등을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각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과, 성경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말씀 사역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진보, 즉 지식의 진보, 입장과 분별력의 진보, 인격과 생활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참된 일꾼은 성화와 직무 수행에 진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16절]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을 삼가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의 자기 훈련을 말한다. 이것은 넓게는 모든 성도의 자기 훈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 ‘가르침을 삼가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이 그의 가르치는 것임을 보인다. 가르침은 단지 가르치는 방법보다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앞에서 한 교훈들이 한 번 실천하고 중단될 것이 아니고 계속 실

천되어야 할 것임을 보인다.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말씀 사역자의 자기 훈련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뜻이다. 잠언 14: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느니라.” 말씀사역의 결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만 또한 상당히 말씀 사역자의 자기 훈련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 사역자의 꾸준하고 부지런한 자기 훈련이 없다면 영혼 구원의 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말씀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말씀 사역자는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성경 읽기와 연구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성경 강해를 들음으로 믿음과 인격이 온전해져야 한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진보, 즉 지식과 분별력과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진보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여 지식과 분별력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라

[20-21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 . .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세상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골 1:16). 본문의 사자는 23절에서 ‘나의 사자’라고 불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는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보내실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했다. 그들은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 만일 그들이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자는 그들의 허물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자가 단정한 천사가 아니고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

령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이었다(창 22:11-12).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는 뵈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다(창 31:11, 13).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였다(창 48:16). 이런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었는데, 그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보인다.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 . .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이시다. 그는 천둥과 벼락, 태풍과 지진을 주장하신다. 이 세상에는 그와 다투어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편이시며 우리를 위하신다. 단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한다.

[23-26절]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하나님의 사자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의 사자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가 그들 앞에 행하시면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柱像)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원문에 ‘... 말며 ... 말며 ... 말고’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또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柱像)을 타파하라’는 원어는 ‘그것들을 완전히 훼파하며 그 주상(柱像)을 완전히 타파하라’는 강한 뜻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 섭리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이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즉 그들이 참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면, 그

들의 양식과 물의 복이 약속되었다. 양식과 물,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 요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수 요건인 양식과 물을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도 약속하셨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 자녀 출산과 인구 증가도 가정과 사회의 복이다.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는 말씀은 ‘충분하게 살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시 55:23), 의인들은 충분히 장수할 것이다.

[27-28절] 내가 내 위엄(에마시 ʾemash) [나의 두려움]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로 그들을 등지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다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신 7:20; 수 24:12). 왕벌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을 가리킨다. 고대 이방인들의 글에는 가나안 거주자들이 개구리나 이나 벌 등 때문에 그 거주지를 버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Poole).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벌은 그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실 여러 재앙들을 상징하는 것 같다.

[29-33절]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 경계를 홍해(아마 홍해의 동쪽 북단 엘랏)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아라바)에서부터 하수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

다.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교제의 문제로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스라엘 지손들이 이방의 신들과 언약하고 그들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범죄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잘못된 교제는 신앙생활에 큰 시험거리이다. 그것은 참된 경건의 변질인 배교와 영적 부패의 첫걸음이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고 그들 앞에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와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거하신다.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 성경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10:12-13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오직 친구 악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가 성경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평안과 승리를 누릴 것이다. 22절,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5-26절, “그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율법의 약속이요 합당한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사 48:18).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 말했다(빌 4:9). 오늘날도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를 원하는 자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수요일 설교 **바벨론 사자의 방문**

[사 39:1-8]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히스기아는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과 유다 왕국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보다 자신의 왕국을 자랑했다.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죄들과 질병과 세상의 환난과 재앙들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뻐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의 은혜만 증거해야 한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 고린도전 3:21, “그러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7,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갈라디아서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것들을 다 주셨고 특별히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때 히스기아는 교만에 떨어졌다. 역대하 32:31,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만에 떨어질 수 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이나 경건했던 히스기아가 실수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하고 하나님만의 지하고 겸손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갈 5:16).

셋째로, 히스기아는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전함이 있을 것을 믿었다. 8절,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안전함)이 있으리니라 하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평안과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만 순종해야 한다. 이사야 48:18,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한다.